

코스피 증가 기준 사상 첫 3,000 고지 안착

기관 매수세 힘입어...개인은 차익 실현 주력
은행·철강 강세...반도체·자동차 등도 합류

7일 코스피가 증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3,000 고지에 올랐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63.47포인트(2.14%) 오른 3,031.68에 마감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12.54포인트(0.42%) 오른 2,980.75로 출발해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곧바로 3,000을 회복했다. 이어 한때 3,055.28까지 오르는 등 2% 이상 상승세를 유지하며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증가 기준으로 3,000을 넘어선 것은 2007년 7월 25일 2,000을 돌파한 이후 13년 5개월여만이다. 코스피는 전날 장 초반 사상 처음 3,000을 넘어섰지만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2,960대까지 후퇴하면서 증가 3,000선 안착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날 3,000 돌파는 기관들의 매수세 덕분이었다. 전날 1조3천742억원을 순매도하며 코스피를 끌어내린 기관들이 이날은 반대로 1조원 넘는 순매수를 보이며 3,000선 안착을 이끌었다. 반면 전날 2조원 넘는 순매수 공세를 펼쳤던 개인들은 이날은 차익 실현에 주력하며 1조1천억원 넘게 팔아치웠다.

미국의 '블루웨이브' 현실화에 따른 경기 부양책 확대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은행과 철강 등 가치주가 시장을 주도하고, 실적 호전 기대가 높은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등도 강세에 합류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시장이 미국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 심리와 실적에 초점을 맞추면서 코스피가 3,000선에 안착했다"고 말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에는 네이버(-0.17%)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이 올랐다. LG화학(8.09%)과 현대모비스(7.41%)가 급등했고, SK하이닉스(2.67%)와 삼성전자(0.87%), 셀트리온(1.13%)도 상승 마감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5.67%), 금융업(4.39%), 화학(3.93%), 유통업(3.07%), 철강·금속(2.93%) 등이 크게 올랐고, 운수창고(2.24%), 기계(1.96%), 전기·전자(1.62%), 건설업(1.51%) 등도 상승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 거래량은 14억9천652만주, 거래대금은 26조8천160억원에 달했다.

상승 종목은 617개, 하락 종목은 220개였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7.47포인트(0.76%) 상승한 988.86으로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89포인트(0.19%) 오른 983.28에 출발해 993.91까지 올랐으나 상승폭을 일부 되돌렸다.

개인이 2천228억원을 사들이며 6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간 가운데 기관은 1천997억원 순매도를 나타냈다. 외국인은 17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상위 주 가운데에는 셀트리온헬스케어(2.93%)와 셀트리온제약(0.70%), 씨젠(2.37%) 등이 상승 마

감했고, 에이치엘비(-0.10%)은 약보합으로 장을 마쳤다. 거래량은 22억2천156만주, 거래대금은 17조9천503억원이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증가보다 1.7원 오른 달러당 1,087.3원에 마감했다. /연합뉴스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63.47포인트(2.14%) 오른 3,031.68로 장을 마감한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참석자들이 코스피 3,000 돌파를 축하하는 박수를 치고 있다.

“경영애로 등 기업 인바디 체크하세요” 중진공 광주본부, 비대면 진단 시스템 개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중소벤처기업이라면 무료로 이용 가능한 비대면 진단 시스템을 정식 개시한다고 7일 밝혔다. 비대면 진단 시스템은 우리가 인바디 시스템이나 헬스케어 앱을 통해 체중이나 비만도를 손쉽게 관리하듯이, 중소기업이 일상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경영 상태와 역량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 방식이다. 중진공은 그간 기업진단을 수행하며 축적한 빅데이터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정보를 활용해 AI기술을 기반으로 산업동향과 기업의 강점 및 약점을 분석해주고, 경영애로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까지 제시할 방침이다. 기업이 기업개요 등 11개 기본정보와 선택항목을 작성하면 내부역량 변화 추세, 문제개신 시나리오 등 총 42개의 진단 결과를 제공해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먼저 외부환경 분석을 통해 산업주기, 경쟁강도, 산업 유망도를 진단하고 사업성과, 기능별 역량 및 기업 경쟁력 등 내부역량을 진단해준다. 성장 가능성 및 위험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방향을 도출해 전략과제를 제시하며,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제시한다. 아울러 기업 맞춤형 연계지원 사업을 추천해 다양한 정책지원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진공은 비대면 진단 결과에 따라 기업고객의 필요시 기술·경영 전문가가 함께 현장에서 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심층진단과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홍선 중진공 광주본부장은 “중진공만의 진단 방법론과 노하우,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기업의 경영위기를 예방하고 맞춤형 애로해결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AI에 가금융 가격 ‘들썩’...오리 70% 급등

살처분 등 수급 불안 우려 달걀·닭고기도 오름세

전남지역을 비롯한 전국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오리, 닭, 계란 등 가금융 소비자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6일 국내에서 첫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산란계 459만 마리, 육계 408만 마리, 오리 136만 마리가 살처분 된 것으로 집계됐다. 계란을 생산하는 산란계는 살처분 영향으로 사육마릿수가 평년대비 약 2.0% 감소했다. 다만, 산란용 병아리를 공급하는 산란 종계 농장들은 살처분 피해가 없어 지난해 12월에도 전년 수준 이상인 356만마리의 산란용 병아리를 산란계 농장에 공급하는 등 계란 생산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육계의 경우 살처분에도 사육마릿

수가 평년대비 3.0% 많고, 냉동 재고는 평년대비 38.9% 많아 전체 공급여력은 평년 대비 약 7.1%(649만마리)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는 2018년 5월 이후 지속된 과잉사육과 수요부족으로 가격이 낮은 수준을 형성하면서, 생산자들이 지난해부터 사육마릿수를 감축한 상황이다. 최근 살처분으로 사육마릿수는 평년대비 16.7% 감소했지만 냉동 재고가 평년대비 73.6% 많아 전체 공급여력은 평년 대비 약 4.3%(53만마리) 많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I로 인한 살처분 마릿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떨어진 영향 등으로 닭·오리와 달걀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지난달 말 기준 오리고기 산지 가격은 kg당 2천313원으로 평년에 비

해 27.1% 올랐고, 1년 전과 비교하면 70.7% 급등했다. 오리고기 소비자가격도 1kg당 1만4천499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24%, 전월대비 1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체 평균 소비자가격으로도 역시 평년 대비 10.8% 높다. 달걀(10개·특란)과 닭고기(1kg) 소비자가격은 각각 1천954원, 5천455원으로 지난달 평균 가격에 비해 9.5%, 6.4% 올랐다.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로 지역 소매 가격 역시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날 기준 광주 양동시장에서 판매되는 닭고기(도계) 1kg의 소매가격은 4천730원으로 1년 전(4천200원)보다 12.6%(530원) 증가했고, 전월대비 14.5%(600원) 올랐다. 계란(특란 30개) 가격도 1년 전 4천260원에서 이날 5천400원으로 급등했고, 전월과 비교해 21.8%(968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환준 기자

●투데이 경제



광주신세계, 코로나극복캠페인 수익금 전달

광주신세계는 지난 5일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수익금 1천만원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익금은 광주신세계 1층 이벤트홀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와 함께 '코로나19로 지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라는 테마를 걸고 한 달간 캠페인을 통해 마련될 수익금을 미리 전달한 것으로, 전달식에는 박흥식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전달된 후원금은 환자치료에 협조고 있는 의료진에게 광주시 감염병 전담병원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며, 취약계층은 100가구 대상으로 반찬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환준 기자

광주경총,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추진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전년도에 이어 고용노동부 2021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올해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천200만원의 만기공제금을 제공한다. /최환준 기자



호남지방통계청, 비대면 시무식 개최

호남지방통계청은 지난 5일 매년 대강당에서 개최해오던 시무식 행사를 최근 영상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부서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이호석 호남지방통계청장의 신년사를 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하는 것으로 행사를 대체했다. 이 청장은 “올해 비대면 조사방식의 확대를 통해 통계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정책에 필요한 정확하고 다양한 지역통계를 확대 개발·개선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광산 엘리체

돈 버는 자리
돈 되는 투자

광산 엘리체 레이크시티

문화예술 복합단지 42만평 도시개발(택지지구)확정

일반분양 84㎡ 610세대

광주의 마지막 2억7천만원대!!!

프리미엄 웰테크 하우스

광산 엘리체 레이크시티

계약자 황금열쇠 증정!

062) 380 - 2984

시행 유한회사 에스케이공업

시공 (주)서진건설

84㎡A·84㎡B 총610실

주인이 직접 만드는 양봉순대

고밥 국밥 수제 돈까스

전문점

양 봉 국 밥	8,000	곰 창 전 골	大 30,000
모듬 국 밥	8,000		中 23,000
머 리 국 밥	7,000	매콤갈비찜 (2인분)	11,000
내 장 국 밥	7,000	대패삼겹살 (2인분)	10,000
콩나물국밥	6,000	모듬 수육	20,000
선 지 국 밥	5,000	머리 수육	15,000
수제등심돈까스	8,000	양 봉 순 대	大 20,000
시골육개장	7,000		中 15,000

모든메뉴 포장가능!

062-521-3303

광주 북구 자동차로 67 (자동차의 거리) 월~토요일 11:00~22:00

고밥카페

식사를 하시면
원두커피 1500원

고밥국밥 위치

GS 전대주유소
신남대학교
충민
기아
범프렌스빌드
신안
사거리
광주역
원동
오거리
GS25
편의점